

서울 컨벤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컨벤션뷰로(SCVB) 설립이 긴급

컨벤션산업 육성의 필요성

- 컨벤션은 21세기 지식형 고부가가치산업
 - 컨벤션 산업은 국제회의,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컨벤션과 관련된 센터운영, 설비 서비스 관련 산업을 의미
 -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무공해산업임
 - 외국인 1,000명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경제적 효과는 반도체 7,800개, 또는 칼라TV 6,000대, 또는 승용차 400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컨벤션 산업의 특성
 - 컨벤션 산업은 관광·숙박·레저·유흥·식음료·교통·통신 등 관련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임
 -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국제회의 용역업, 호텔, 항공사, 여행사, 회의관련 기타 산업 등 서비스를 주된 상품으로 하는 3차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됨
 - 컨벤션 참가자의 경우 일반 관광객보다 체재기간이 1.5배 정도 길고 지출액은 약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컨벤션 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나 '서비스산업의 꽃'으로 불림

국내 컨벤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일반 현황

-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각종 국제회의나 대회의 국내 개최가 큰 폭으로 증가해 왔음
- 또한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개최와 국내 최초의 전문회의장인 COEX 컨벤션센터 증축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수용능력이 개선되어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가능성이 더욱 확대됨

[표 1] 국내 국제전문회의시설 현황

시설명	규모	주요시설	부대시설	공정률
코엑스(COEX)	지상5층, 지하4층	대회의장 6,500석 중소회의실 52개실 전시시설 4개실	사무동, 숙박시설, 주차시설, Retail, 수족관 등	2000년 개관
서울잠실 제2롯데월드부지	지상112층, 지하5층	컨벤션시설 5,000평	로비, 동시통역실, 부속실	추후 완공 예정
부산전시컨벤션센터 (BEXCO)	지상7층, 지하1층	대회의장 2,88석 중소회의실 22실 전시장	옥외전시장 편의시설 전시부속품실 등	2001년 개관
대구전시컨벤션센터 (EXCO Daegu)	지상5층, 지하4층	전시장 2,342평 컨벤션홀 3,200 중소회의장 11실	-	2001년 4월 19일 개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지상4층, 지하2층	컨퍼런스홀 4,300석 대회의실 1,84석 중회의실 514석 소회의실 6실 전시실 818평	상업시설 주차장 썬큰가든	2003년 준공
수원컨벤션센터	부지 27,052평	컨벤션센터 2,500석 특급호텔 401실 전시장 6,400평	기획상가, 오피스텔 등	2009년 전시실 완공 예정
고양국제전시장	부지 10만평			2004년 초 예정
대전컨벤션센터	지상2층, 지하	대회의장 2,000석 중소회의장 10실 전문전시장 6.50평	무역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2009년 완공예정

출처 : 한국관광공사, 「청사초롱」, 제180호 2001년4월26일자 수정보완

- 국내컨벤션산업은 2000년 서울 COEX 증축, 2001년 부산 BEXCO, 대구 EXCO, 2003년 ICC Jeju 등 여러 컨벤션센터가 설립되어 호의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표 1] 참조)
- 특히 2003년은 국내 컨벤션부문의 획기적인 해로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국제회의에 대한 정부지원이 본격화되고, ‘컨벤션기획사제도’(2급, 8월 필기시험 시행)의 도입으로 다수의 전문기획사가 배출되어 유관 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임

○ 국제회의 개최 실태

-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지난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국제협회연합(UIA)기준으로 개최순위는 18위, 아시아국가중에서는 4위를 차지함
- 서울은 2001년 기준 총 107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도시중에서는 18위,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을 제치고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세계 주요도시 국제회의 개최 현황('97~2001) (단위 : 건)

도시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파리	1	229	1	276	1	247	1	249	1	249
런던	2	191	3	195	4	160	2	200	2	205
브뤼셀	3	188	2	209	2	187	3	185	3	182
비엔나	4	140	4	157	3	165	4	183	4	178
싱가포르	5	120	5	124	5	140	6	131	6	138
제네바	12	119	9	105	18	74	7	108	11	97
베를린	16	114	7	112	6	136	8	105	11	97
서울	18	107	20	74	24	65	37	43	22	70
홍콩	19	77	18	76	14	84	20	76	9	100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2

○ 국내 컨벤션산업의 문제점

- 서울이 국제회의 개최 건수의 70%이상을 차지하여 지역편중이 심각하고 이 비중은 향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주최자, 기획전문업체(PCO), 전문인력의 서울편중도 심각한 수준임
- 서울, 부산, 대구 이외에 2003년 제주 컨벤션 센터가 완공되어 향후 컨벤션시설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특히 서울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국제회의장이 건립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시설간의 과당·출혈경쟁이 예상됨
- 전문인력의 국제회의 기획력과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컨벤션 운영을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난 2000년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발효되었으나, 그 실행력이 미흡하여 컨벤션 관련 예산지원이나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 서울지역 컨벤션 뷰로(CVB)가 창설되지 않아 컨벤션 유치능력의 집중과 역할분담이 어렵고 관광, 숙박 및 항공업 등 관련 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에 한계가 있음

서울지역 컨벤션 전담기구로서의 서울컨벤션뷰로(SCVB) 창설 개요

○ 서울컨벤션뷰로(SCVB) 설립의 필요성

-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드니, 도쿄, 싱가포르, 홍콩, 오사카 등 세계 주요 도시는 오래전에 컨벤션 뷰로(CVB)를 설립하여 국제회의 행사지원이나 정보의 수집 및 지원, 각종 홍보활동, 그리고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한국관광공사에 컨벤션 뷰로가 설립되어 있고, 지역단위로

는 2002년 부산, 2003년 대구에 컨벤션 뷰로가 만들어져 국제회의 유치지원, 관광 및 컨벤션 관련 마케팅, 그리고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과 같이 컨벤션 뷰로가 없는 도시는 컨벤션 유치(협상)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업계를 망라하는 패키지 프로그램(package program) 제공이 어려워 도시매력도가 떨어지고 종합적인 마케팅과 홍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서울의 컨벤션 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관련 단체들이 협력·참여하여 컨벤션 개최지로서의 서울을 마케팅하고 이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서울의 경제와 관광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조직으로 서울 컨벤션 뷰로(SCVB: Seoul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의 설립이 필요함

○ SCVB 설립의 추진 방향

- 영미의 컨벤션 뷰로는 비영리 민간업계를 중심으로하는 민간기구 성격인 반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권은 도시정부 주도하의 민관협력형태가 주종인 바, 양 형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립되어야 함
- (가칭)서울컨벤션협의회와 같은 민관협의체를 우선 구성하여 사전준비 작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관련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민간부문의 아이디어와 창의력, 경영능력, 순발력,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함

○ SCVB의 바람직한 구성 형태

- 上述한 (가칭)서울컨벤션협의회를 준비위원회 성격의 민관협력 한시조직으로 가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가 참여하면서 관련 민간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재단법인형 SCVB를 창설

- SCVB의 회원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관련 업계와 단체, 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학회와 협회, 로타리 클럽 등 컨벤션 관련 잠재수요 단체를 특별회원의 자격으로 참여토록 하여 저변을 확대하고 컨벤션 관련 수요-공급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
- 회원으로는 컨벤션 관련 기관과 단체(예컨대 한국관광공사, 서울시관광협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등), 컨벤션 센터, 특급 호텔, 컨벤션기획전문업체(PCOs), 전시주체자,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학회/협회 등 주요 주최기관, 학계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
- 외국 주요 도시들이 지역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컨벤션뷰로를 구성·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서울상공회의소 등 서울지역의 경제, 관광진흥에 도움을 주는 단체와의 연계와 협력활동을 강화

○ SCVB의 수행 기능과 역할

- 컨벤션의 유치와 개최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활동과 서울홍보관 설치를 통해 전문 전시회 참가 활동 실시
- 컨벤션 관련 네트워크와 인력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사이트 링크를 추진하며,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도록 함
- 참여기관 및 업계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협의·건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로 역할
- 서울시의 컨벤션 기반 확충과 마케팅 및 홍보·광고사업을 대행하며, 서울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

이종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마케팅연구단장
jglee@sdi.re.kr